

	일본 (도쿄) 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성용찬 소장
		일시	2025. 5.

CEPA Insight

- 고등학교 졸업생 채용이 2년 연속 대학 졸업생 채용 앞질러
- 닛산, 신에너지 차량 개발 확대를 위해 중국에 2,000억엔 추가 투자

1. 고등학교 졸업생 채용이 2년 연속 대학 졸업생 채용 앞질러

- 2026년(봄) 입사 예정 고등학교 졸업생 20,135명(전년 대비 13.6% 증가)
 - 일본의 '니혼게자이' 신문이 집계한 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2026년 봄에 입사 예정인 고등학교 졸업생은 20,135명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음. 2년 연속 대학 졸업자 증가율(11.5% 증가)을 상회함.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직 희망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많은 기업이 현장에서 주력 인력으로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계획 인원을 늘리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용 경쟁* 격화 중임.

* 일본은 노동력 부족으로 구직자보다 구인 기업에서의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 되고 있음.

○ 부분별 및 기업별 증가율

- 제조업 부문은 14.1%, 비제조업 부문은 13.1% 증가함. 순위에서는 전년 대비 9.2% 증가한 380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인 SECOM 그룹이 1위를 차지함. 이 회사의 채용 부서 총괄 책임자인 타무라 히로아키는 "미래의 리더로서 보안 사업을 이끌어갈 인재의 모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특히, 급히 출동하여 기계 보안으로 대응하는 인원의 계획 수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강도 사건에 대응하여 기계 보안 계약 건수 증가에 대한 대응임. 회사는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고용 예정 직원 수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야마토 운수는 직원 수를 전년도에 비해 약 360명으로 늘릴 계획임. 노동 인구 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노동력 부족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역시 2위를 차지한 무라타 제조업 그룹은 제조업 생산 기술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축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채용에 중점을 두어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음. 전기과, 기계과, 정보 시스템과 등에서는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는 학생을 모집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힘.
- 산업별로는 제지 및 펄프 산업(62.7% 증가), 도자기 산업(29.8% 증가), 육상 운송 산업(34.7% 증가), 기타 소매업(23.6% 증가)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으며, 총 43개 업종 중 27개 업종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함.

○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환경(채용 기업 입장)**

- 고등학교 졸업생의 채용 환경은 여전히 까다로움. 25년 봄에 채용 예정인 사람의 '충족률'은 87.6%로 대학 졸업자(92.4%)보다 낮음. 특히 정밀기계(60.7%), 펄프 및 제지(66.3%), 백화점 및 슈퍼마켓(67.1%), 육상 운송(70.2%) 등에서 채용 난(구인)이 현저하였음.
-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25년 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취업준비생은 12만 8,145명으로 10년 전보다 30% 감소함. 저출산 감소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하는 학생의 증가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생의 비율도 감소하고 있음.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구인 비율은 3.91배로 버블 기간을 넘어 같은 달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출처 : 니혼게자이 2025. 4. 24. 게재 기사)

《 고졸채용 계획 랭킹 》

순위	회사명	2026년 통계(봄 기준)	증가율(%)
1	세콤	380명	9.2
2	무라타제작소그룹	약 360명	0.3
3	야마토운수	약 360명	102.2
4	JFE스틸	300명	6.4
5	미츠비시이중공업	약 300명	17.2
6	야마다호텔홀딩스	274명	71.1
7	일본통운	약 280명	21.2
8	야마쿠	280명	8.9
9	미츠비시전기	250명	0.0
10	사가와익스프레스	약 250명	64.5
11	JR서일본	240명	▲7.7

2. 닛산, 신에너지 차량 개발 확대를 위해 중국에 2,000억엔 추가 투자

- 닛산자동차(Nissan Motor Co., Ltd.)는 3월 23일 2026년 말까지 중국에 100억 위안 (약 2,000억 엔)을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주요 전기 자동차(EV) 제조업체 인 BYD와 같은 현지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 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사업은 고전하고 있음. 이에 현지 경쟁사와 경쟁할 수 있는 신형 모델을 늘리고 세계 최대 규모 인 중국 시장에 컴백 하는 것을 목표로 한 투자계획임.
- 같은 날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상하이 국제 오토쇼에서 중국 사업을 담당하는 스티븐 마(Stephen Ma)가 발표함. 닛산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픽업트럭(PHV)인 '프론티어 프로'를 공개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중국에서 발매해, 해외전개도 진행할 예정임.
- 닛산은 주요 시장인 중국의 BYD와 같은 현지 경쟁업체와의 경쟁에 밀려나고 있음. 2023년도 판매량은 약 79만대로 떨어졌는데, 이는 5년 전 2018년 판매량(약 156만 대)의 약 절반임.
- 동펑자동차그룹(Dongfeng Motor Group)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전략적 전기차 모델인 N7도 출시할 예정이며, 사업성과의 회복 위해 신에너지 차량과 같은 신차 개발을 강화 중임.
- 2000년부터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 현지 기업과 제휴하여 본격적인 현지 생산을 시작함. 닛산은 한때 중국의 3대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중 가장 성공한 회사로 알려졌다으나, 현재 어려움으로 인해 창저우 공장(중국 장쑤성)은 2024년 6월에 폐쇄됨.

(출처 : 니혼게자이 2025. 4. 23. 게재 기사)



[상하이 국제 오토쇼에서 발표 된 신형 닛산 자동차 PHV(프론티어프로, 4. 23, 중국 상하이)]